

Mail: info@innovation-academy.de

Innovation Academy e. V. • Bertoldstraße 45 • D-79098 Freiburg

지속가능발전교육(BNE)을 위한 스터디 연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기후변화, 빈곤, 자원 고갈과 같은 글로벌 과제를 서로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BNE)을 중심에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요한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3~6시간 규모의 단기 교육 프로젝트와 최대 2년 6개월에 이르는 지역 기반 장기 프로젝트를 개발·운영해 왔습니다. 주요 대상은 학교 학급, 직업교육생, 대학생, 성인교육 참여자 및 교원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입니다.

타 지역에서도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선별된 프로젝트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각 프로그램이 기획된 배경과 교육 목표,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함께 살펴보며, 한국 교육기관과의 교류 가능성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 교육 모델을 중심으로 한 스터디 연수 기획에 대해 기꺼이 자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성공적인 전문 연수 운영과 모든 참여자에게 의미 있고 유익한 교류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소통과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방문단의 핵심 관심사와 주요 질문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그리고 사전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관, 연구기관, 현장 기관과의 일정 조율에는 조기 협의가 필요하며, 방문단 참가자 명단 또한 미리 전달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전문 연수의 모듈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젝트들입니다.

- 「기후 탐방 샤우인스란트(Klimaexpedition Schauinsland)」

프라이부르크의 상징적인 산이자 대표적인 휴양·자연보호 지역인 샤우인스란트를 방문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은 현장을 걸으며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온실효과, 자연과 경관, 산림과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같은 주제를 생생하게 배우게 됩니다.

- 「보봉에서의 만남(Treffpunkt Vauban)」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모델 주거지구 보봉(Vauban)의 도시계획 사례를 살펴봅니다. 이 지역은 시민 참여, 자동차 이용 절감, 재생에너지 활용, 빗물 침투 시스템, 녹지 공간 확충,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교류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다른 도시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합니다.



- 「주차장 대신 파프리카(Paprika statt Parkplätze)」

슈퍼마켓, 체육관, 학교 앞의 주차장은 넓은 공간을 차지하며 토양이 물을 흡수할 수 없게 만듭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공간을 생태적 생활 공간으로 전환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봅니다.



- 「조심! 플라스틱(Vorsicht Plastik)」

플라스틱은 공기와 물은 물론, 우리 혈액 속에서도 발견될 만큼 일상 깊숙이 존재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워크숍에서는 림밤과 데오드란트 등을 직접 만들어 보며, 실천 가능한 대안을 즐겁게 체험합니다.



장기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에서는 단계적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구조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기후보호(Klimaschutz konkret)」 (2012–2014)

프라이부르크의 3개 김나지움 9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로,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CO₂ 감축을 실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교육용 매뉴얼과 현장학습, 측정기기를 활용하여 학생들은 가정이라는 ‘확장된 실험실’에서 전기, 난방, 물 사용, 소비, 이동 방식을 보다 기후 친화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그 결과는 전시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결과 학급당 평균 약 65톤의 CO₂ 감축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독일 전체 9학년 학급으로 환산할 경우, 이론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한 곳의 가동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합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인터뷰에서도 환경 인식의 향상과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 「꽃피는 산업단지(BIG: Blühende Industriegebiete)」 (2018–2020)

이 프로젝트는 프라이부르크 북부 300헥타르 규모 산업단지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직업교육생들과 함께 기존 산업 부지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구성하여 생태적 환경과 체류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사전 기획에서부터 교육 및 워크숍, 실행 단계에 이르는 5단계 과정을 통해 대상지를 분석하고 지도화했으며, 구체적인 녹화 가능성을 도출했습니다. 바젤, 취리히, 프라이부르크 현장 방문을 통해 옥상·외벽 녹화, 도시농업, 자연 친화적 서식지 조성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꽃초지, 텃밭 상자, 녹색 휴게 공간, 조류 서식 구조물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개발되었습니다. 여러 조치가 실제로 실행되었고, 2020년 'BIG-이벤트'에서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사진 공모전과 언론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 인지도 또한 크게 높아졌습니다.

결론: 본 프로젝트는 참여적 접근, 생태적 개선, 기업의 참여, 인식 제고가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클리막스 파르쿠어(Klimax Parcours)」 (2023–2025)

4개 기업과 12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기후보호 및 기후적응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지속가능성 규약, 이동, 에너지, 빗물 활용, 녹화 등을 주제로 3시간 분량의 교육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 현장 방문을 통해 모범 사례를 직접 살펴보았으며, “우리는 기후를 바꾼다 –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바꾸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진행된 사진 공모전은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산업단지를 위한 실행계획 목록이 마련되어 언론에 공개되었고, 경제·행정·학계 대표가 참여한 패널 토론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정점은 기후 친화적 파빌리온의 개관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정보 제공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안 및 교류

귀 기관이 계획 중인 교육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요청하실 경우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한·독 교류를 기대합니다.

